'현우경' 이야기 (29)

쓰레기 모자를 쓴 파파야스

"자비심 내면 쓰레기 모자도 보석으로…"

삽화 · 강병호

어느 날 부처님이 입적하기 전, 아난다를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죽고 나면 바라나시에 구제라는 거사를 찾아가거라. 그에게는 우바국다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데려다 출가시켜 불법을 가르쳐라. 네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사람에게 내 뜻을 전하거라."

시간이 흘러 아난다도 입적하게 되자, 부처님의 뜻을 그의 제자 야세기에게 전했다. 야세기는 아난다의 말에 따라 바라나시로 가 구제를 찾았다. 그때 구제는 아파구제라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야세기가 구제의 아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

"아파구제는 저의 첫 아들이라 제 뒤를 잇게 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 그 아이를 출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해, 구제는 난타구제라는 아들을 낳게 됐다. 야세기는 또 구제를 찾아갔다.

"첫 아이는 제 일을 잇게 하고, 둘째에겐 집안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땐 반드시 출가시키겠습니다."

구제는 자신의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다. 시간이 흘러 구제는 셋째 아들을 낳게됐다. 이름은 우바국다였다. 우바국다는 용모가 매우 뛰어나고 총명했다. 야세기는 우바국다를 보고 생각했다.

'존자가 말씀하신 우바국다가 바로 저 아이로구나.'

야세기는 구제에게 우바국다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다. 구제도 이번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 조금 더 자라면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비범함을 보였다. 우바국다가 20살이 되던 해, 야세기는 우바국다를 찾아갔다. 우바국다는 야세기의 말에 따라 출가했다. 그는 출가를 하자마자 도를 깨쳤다. 우바국다는 도를 얻은 후, 대중들 앞에서 많은 설법을 했다.

그 나라에는 파파야스라는 이가 함께 살았다. 그는 우바국다가 대중들 앞에서 설법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우바국다가 설법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금화를 뿌려, 사람들이 금화를 줍느라 설법을 듣지 못하게 했다. 또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미인들을 데리고 와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바국다에게도 여자를 보내 유혹하게 하는 등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파파야스는 매일 같이 우바국다 앞에 나타나 설법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우바국다는 파파야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설법하는 데만 집중했다.

어느 날 우바국다가 선정에 들어 있을 때였다. 파파야스는 그 틈을 타 우바국다에게 요상한 모자를 씌운 후, 사람들에게 우바국다는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흉을 봤다. 우바국다는 파파야스를 불렀다.

"자네가 나에게 좋은 모자를 선물해줘, 나도 고마움을 표시로 선물을 준비했네."

우바국다는 파파야스에게도 모자를 선물했다. 파파야스는 별 의심 없이 그 모자를 냉큼 썼다. 그러자 모자가 쓰레기로 변했다. 파파야스는 얼른 그 모자를 벗어 버리려 했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다.

결국 파파야스는 제석천왕을 찾아갔다.

"제석천왕님, 제발 이 모자 좀 벗겨주십시오. 제 머리에서 썩은 내가 진동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자는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벗길 수 있다네. 내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네."

파파야스는 하늘에 있는 여러 왕들을 찾아가 물었다. 결국 아무도 그 모자를 벗겨 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우바국다를 찾아갔다.

"제발 이 모자를 벗겨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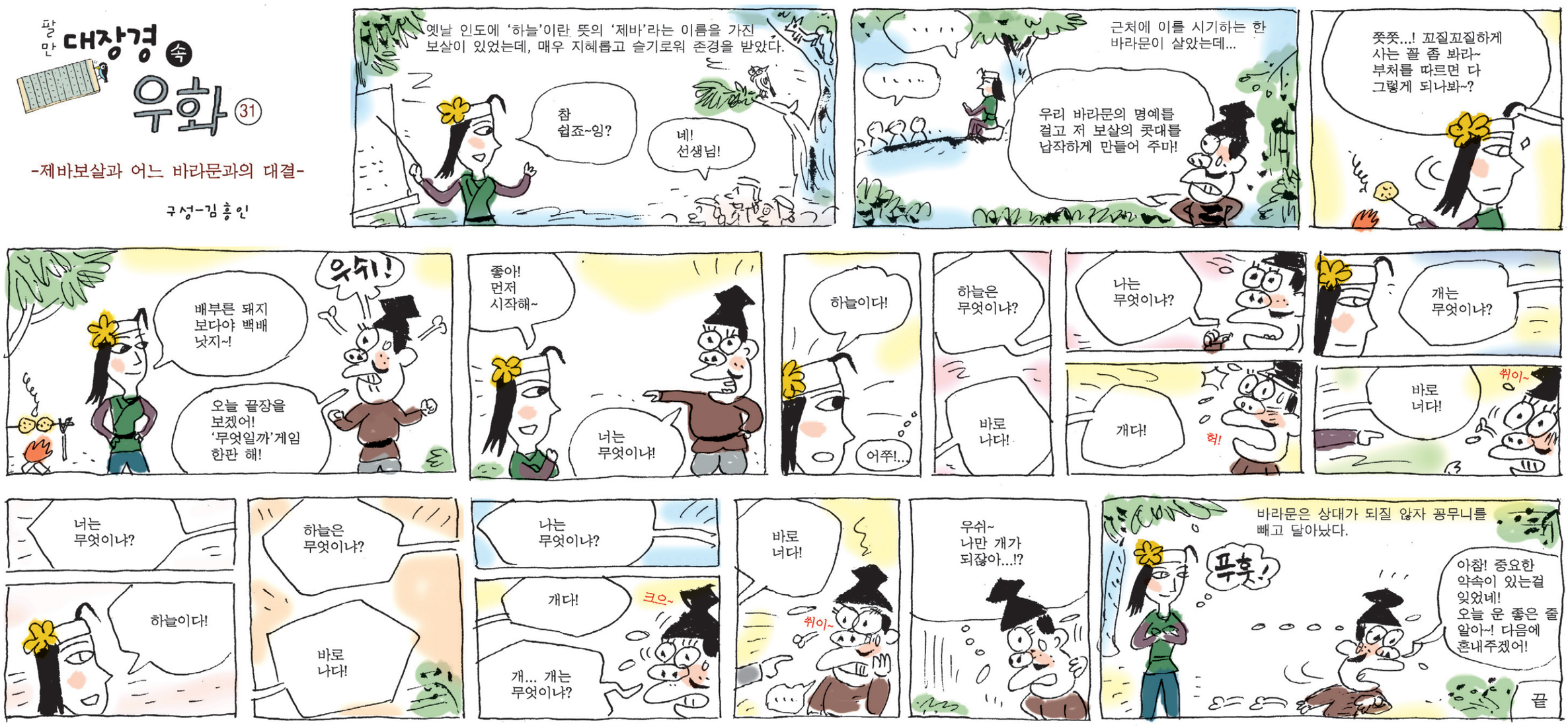
"너는 너의 죄를 알겠느냐."

"예 부디 저를 가엾게 여겨 이 모자를 벗겨주십시오."

"네가 진심으로 자비심을 내 중생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 모자가 보석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나쁜 마음을 내면 쓰레기로 변할 것이다."

파파야스는 이후, 늘 착한 마음을 내며 살았다. 우바국다는 그 후로도 여러 중생들을 제도해 불법을 알렸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참음이 제일 가는 도道이니 중생의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하심 · 인욕 수행지침서
항복기심
– 참는 연습
영곡스님 지음
신국판 | 부분 컬러 | 334쪽 | 12,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진정한 참음은 '참된 자신'眞我에 머물고 성스런 참음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안주하는 것

팔공산 절벽에서 목숨 건 정진 끝에 종교적 체험을 얻은 저자(조계종 수좌)는 삼매 중에 많은 전생을 돌아보며 당신의 업보를 알게 됐다. 마음속의 원망등을 해소하고 거룩한 자비심을 깨달은 그는 불자들이 인욕바라밀을 닦아 무한한 행복을 누리길 발원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맹파명리 중국 단건업 선생 초청 특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건업 선생의 강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건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시, 중식 : 1시 ~ 3시, 3시 ~ 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합의 응용, 충의 응용, 부귀팔자 잡아내는 법
-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 연 락 처 : 031)918-7550, 011-1743-0543
-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맹파명리연구원